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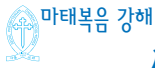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세례 요한의 비통한 죽음

(마 14:1-12)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 베들레헴 인근에 2살 미만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죽인 매우 잔혹하고 잔인한 헤롯 대왕의 장남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때에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1-2절).

이처럼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을 두려워한 것은 한때 동생의 아내였던 자신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이었습니다(3-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어 요한이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 소반에 얹어지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Sad Death of John the Baptist

(Matt. 14:1-12)

Herod the Tetrarch in the text who had killed baby boys under two years near Bethlehem, when Jesus was born, was Antipas the first son of Herod the king who was very cruel and violent.

“At that time Herod the Tetrarch heard the report about Jesus, and he said to his attendants, “This is John the Baptist; he has risen from the dead! That’s why miraculous powers are at work in him” (v.1-2).

Like this, the fact that Herod was afraid of John the Baptist who had risen from the dead was his wife Herodias who was once his brother’s wife (v. 3-4). Nevertheless, the reason why Herod was not able to treat John the Baptist with contempt was that people considered him a prophet, and John was unconditionally respected and got their trust. But John the Baptist was miserably beheaded and brought in on the platter.

1. 세례 요한의 입장

세례 요한은 혼신을 다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외쳤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했습니다. 왕이 도착하기 전에 나팔수는 왕의 도착을 알리는 나팔을 요란하게 불니다. 그리고 왕이 도착하면 나팔수는 임무를 완수했으므로 더 이상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팔수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들러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다 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 는 쇠하여야 하리라.”

2. 우리들의 입장

어떤 죽음이든지 사명을 완수했다면 어떤 형태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한국교회에 초기에 들어 온 많은 선교 사님들 가운데도 제대로 된 사역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분들의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한국교회는 이제 세계의 복음 화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완수하고 죽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거룩한 죽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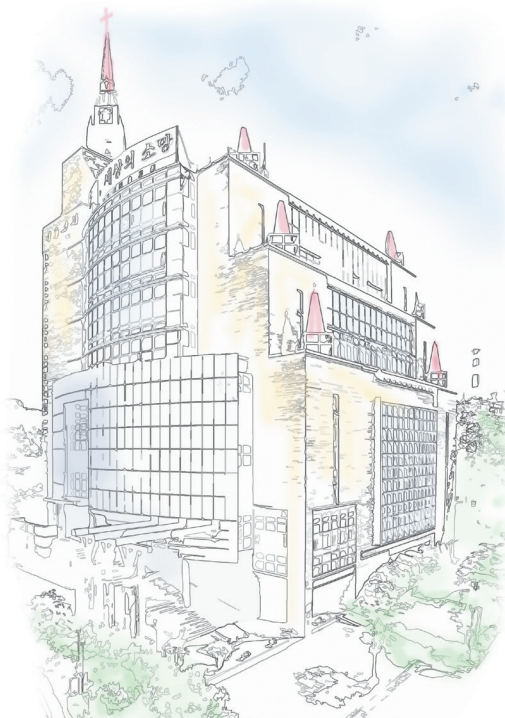
3. 예수님의 입장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혼자 빌들로 가셨습니다. 혼자 슬퍼 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지, 얼마나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한 종인지를 잘 알고 계셨으므로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비극적으로 보이고, 모두가 피하고 싶은 죽음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심판주이신 예수님께는 인정받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죽음이든지, 오직 사명을 다하다 죽는 죽음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 인정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he position of John the Baptist

John the Baptist shouted with his body and soul that Messiah would come, and fulfilled his mission to let people confess their sins. Before a king arrives, a trumpeter noisily blows a trumpet in order to inform the king’s arrival. After his arrival, the trumpeter does not blow a trumpet more because he thinks he has done his duty. John was like a trumpet. He knows his own business best as a bride-groom and confesses like the following,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2. Our position

If a man completes his mission he will be great, holy, and glorious in death. Among many missionaries who came in the early years of the Korean Church, there were many of them who had not done well and died because of an endemic disease.

Yet, their death became a seed of the Gospel and the churches in Korea were established. Nowadays Korean churches are influenced by the globalization of the Gospel. Therefore, the death of John the Baptist is holy.

3. The position of Jesus Christ

Jesus who heard the news of John the Baptist’s death went out to the field alone. He had a time to cry sadly. Because He knew that John the Baptist was a great servant of the Gospel, he prepared the path of Jesus, and was a servant who completed his mission.

My beloved Christians,

In the worldly viewpoint, though the death of John the Baptist seems to be tragic and we to want to avoid it, his death is recognized by Jesus who will come to judge.

In any and every death, by completing the gospel mission,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have a wonderful life and be recognized and comforted by Jes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홍해 작전, 승전 3일 앞으로

6월 21일(토) 현재 연인원 14,057명 참석

2014 홍해작전(참모장 이영기 장로)이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히 11:16)라는 주제로 승전을 위한 행진이 6월 21일(토) 현재 연인원 14,057 명이 참석하여 홍해를 건너기 위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토)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기도의 날"로 정하고 영아부부터 청년1, 2부까지 모두 참석

하여 축복기도를 받았다. (사진) 앞으로 승전까지 3일 남은 홍해작전에 원거리에서 참석하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 다락방별로 카풀을 권장한다. 또한 출석을 격려하기 위하여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는 7번 이상, 청년1, 2부는 14번 이상, 장년부는 전 기간을 출석하면 마지막 날 의미 있는 기념품을 시상한다.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시작 디아스포라부 6월 28일(토)를 시작으로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25(금)~27(주일)	서울교회	예수님의 사랑, 온세상의 광명!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사랑 나눔 미션을 수행하라	양세라 전도사
유년부			나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김안성 목사
초등부	7/30(수)~31(목)	아가페타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최민혁 전도사
중등부	7/24(목)~26(토)	아가페타운	나는 순금이 좋다	박노철 목사 / 노정호 목사
고등부	7/31(목)~8/2(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를 본받아	박노철 목사 / 천세종 목사
청년부	8/12(화)~8/16(토)	경기도 광주	새로운 도전,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박노철 목사 / 서준권 목사
청년2부				장재원 전도사 / 정대는 전도사
사랑부	7/12(토)~13(주일)	서울교회 / 아가페타운	주안에서 우리는 하나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7/24(목)~26(토)	아가페타운	예수의 사랑을 주는 사람들	임규현 목사
디아스포라부	6/28(토)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서명철 목사
영어예배부	7/18(금)~19(토)	아가페타운	INTIMACY WITH CHRIST	김다니엘 목사

이 호 목사 초청설교

6월 29일(주) 찬양예배 시 주제 -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의 건국

우리교회는 6월 29일(주) 찬양예배 시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주제로 이호 목사(기쁨누리교회 담임)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한 왜곡된 국가관이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때에 이호 목사를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루셨는지 명쾌한 역사적 반증을 통해 듣게 될 것이다. 장년부 성도들은 물론, 특별히 유년부부터 청년1,2부의 모든 다음세대들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 이 호 목사 약력 -
- 기쁨누리교회 담임목사
- KOSTA 강사
- 주간 <뉴스코리아> 칼럼니스트
- 대구신학대학교, 고신대학교 외래교수
- 청강문화산업대학 겸임교수

선교지 탐방

6월 30일(월)~7월 5일(토)

우리교회 선교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장로)는 박노철 담임목사를 모시고 6월30일(월) - 7월5일(토)까지 카자흐스탄, 러시아 선교지를 방문하여 이은준 강해정 선교사 사역지를 둘러보는 한편 우리교회의 후원으로 수술을 한 후 귀국한 살리닷 가정을 방문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후원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34)

(문 134) 성경은 낙태(유산)를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까?

(답) 현대의학 기술이 발전하기까지 낙태 수술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애기들이 어머니가 살해되었을 때만 자궁 내에서 죽음을 받았습니다. 암1:13에 의하면 암몬자손이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했습니다. 자궁속의 태아를 인간으로 보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몇 달부터 또는 며칠부터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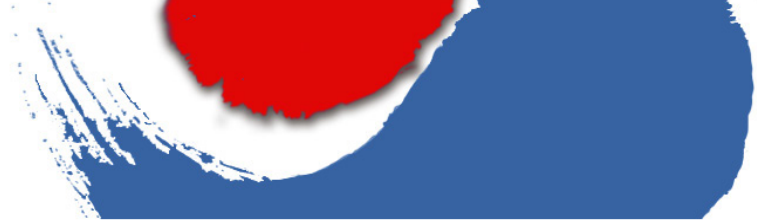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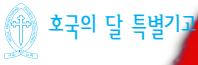
시139:13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태아가 전 세계 도처에서 살해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개인 개인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유전 정보도 갖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렘1:5에서 하나님은 젊은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예지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인간 존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예정하심을 가르친 것입니다. 복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간주됨으로 그 생명을 해하는 손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49:1 의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라는 말씀은 언제부터 생명으로 간주하느냐는 논쟁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고 예수님의 수태 고지를 통해 보아도 (눅1:35) 잉태된 순간의 생명을 인간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낙태논쟁에서 어떤 이들은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했을 경우 다른 해가 없을 경우엔 벌금을, 해가 있을 경우엔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값으라는 말씀(출 21:22-25)을 종종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미 출생한 아이를 살해한 것과 보상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는 히브리어 원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다 말한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그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이갑진 장로
(해병대 전력연구소 소장)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 (Vegetius)의 말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괴의 불법남침으로 일어난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항하여 우리 국군과 21개국의 UN 참전국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다. 총성은 멈추었으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120만에 달하는 북한군의 70%가 수천 문의 장거리포와 수천 대의 전차와 함께 전방배치 되어, 장거리포는 서울을 사정권으로, 미사일은 제주도를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수도 서울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면 닿을 수 있는 휴

전선을 가운데 두고, 우리는 군사밀도 세계 제1위의 지역에 살고 있다. 북한의 핵 앞에서 발가벗은 대한민족인데, 아직도 저들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징후는 아무것도 없다.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을 시작으로,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그 해 11월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고, 서해 NLL 상에서의 국지도발 위협은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끊임 없는 도발과 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김정은 정권몰락의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김정은 정권의 체제 불안정 사태나 전쟁 도발상황이 예상외로 급작스럽게 닥쳐올 수 있음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쟁은 승자가 될 우리에게는 물론, 패자가 될 저들

모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화두는 전쟁이라는 말보다 평화에 있다. 과연 평화를 외친다고 전쟁이 막아지는 것일까? 아니다. 상대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만큼 우리의 전쟁 대비가 있을 때에 막아진다. 우리가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대비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카로운 칼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 후 "그의 손 그늘과 화살 통에 숨기시고 감추어 두셨다가" 그분의 시간에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49:2). 시간은 그분의 주권이니 우리는 오직 준비할 따름이다. 도적같이 올 그 혼란의 날을 대비하며,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경성하고 깨어,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 승전합시다!



최규초 집사
(흥해작전 차장)

지금 진군하고 있는 2014년 흥해작전-“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는 호국의 달 현충일 6일 새벽 5시부터 6.25기념일까지 20일간 우리 앞에 있는 흥해를 말씀과 기도로 다음세대인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러 모든 성도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대행진입니다.

24년차 서울교회와 역사를 갈

이 하는 흥해작전은 택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흥해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7가지 기도문을 합심하여 오직 복음화 된 통일조국과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흥해도 믿음으로 건너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적신으로 올 때 울며 왔으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만 의지하고 천성 분향을 향해 웃으며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한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제 남은 3일간 낙오자 없이 승전 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2014년 흥해작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 받고 기도로 흥해를 믿음으로 건너 본향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유모차부대



남재은 집사 (12교구)

흥해작전 기간에 볼 수 있는 은혜로운 모습 중 하나는 본당 3층 통로에 늘어난 유모차 부대일 것입니다.

잠에서 깨지 않은 어린 자녀들을 안고 업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길을 가르며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기에, 또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기에 유모차부대의 모습은 매일 아침 저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합니다.

저희 가정은 20일간의 흥해작전기간 동안 받는 은혜로 1년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년 큰 은혜를 받고 있기에 올해에도 그 은혜를 포기할 수 없어 10살짜리 딸과 6살, 5살 연년생 아들들을 쌍둥이 유모차에 태우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각각 서울교회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에 속해있는 저희 아이들 또한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천로역

정 교재를 통해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한 일은 작년까지 만해도 울음으로 시작해 울음으로 새벽예배를 마치던 막내 하울이가 올해에는 유아부 구분해 전도사님께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만들어주신 교재 “꼬꼬마 천로역정” 덕분에 담임목사님의 새벽 설교 말씀 중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들리면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며 힘든 일들을 분명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흥해를 바닷길을 열어 마른 땅을 걷게 하시던지,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시던지 결국엔 건넌게 하실 주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강한 믿음의 씨앗만 마음속에 잘 심어준다면 분명 우리 아이들은 천성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큰 축제에 내년, 후년에는 더 많은 유모차들을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